

## 일본시장에서 한국과 중국의 수출경쟁력비교 분석

최병철  
경제학과

### 〈요 약〉

본 연구의 목적은 변화하는 국제경제환경에서 1980년대 까지 한국과 보완관계에 있는 중국이 1990년대에 들어서면서 세계시장에서 한국과 경쟁관계로 발전함에 따라 양국의 제2의 수출시장인 일본에서의 수출경쟁력 변화를 비교 분석하는 것이다. 이와같은 수출경쟁력을 비교 분석하기 위하여 양국의 대일 주요 수출품목에 대한 현시비교우위지수와 시장점유율을 이용하였다. 분석 결과에 따르면 1990년대에 들어서면서 중국의 경쟁력이 전품목에 걸쳐 두드러지게 강화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한국은 석유제품, 일반기계, 철강 등의 일부품목을 제외한 전품목에서 경쟁력이 떨어지고 있다. 그러나 아직까지 한국의 경쟁력이 훨씬 강하여 당분간 비교우위를 유지할 것으로 보이는 품목은 전기기기, 정밀기계, 금속품 등의 중화학공업제품이며 어패류, 여행용구 및 핸드백, 신발 등의 일부 잡제품에 있어서는 한국의 경쟁력은 큰 폭으로 떨어지는 반면 중국은 급격히 상승하므로 이들 품목에 대한 한국의 비교우위가 조만간 상실될 것으로 예상된다. 그리고 양국 모두 최대의 대일 수출품목인 섬유제품의 경우는 중국의 지속적인 경쟁력 상승과 한국의 지속적인 하락으로 중국과의 경쟁력 격차가 더욱 벌어지고 있다.

---

## Analysis of Comparative Advantage Between Korea and China in Japan

Choi, Byongcheol  
Dept. of Economics

###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analyze the change of export competition

between Korea and China in Japan by using Revealed Comparative Advantage(RCA) Index and Market Share(MS). According to the results, export competition of Chinese products is significantly increased overall in the 1990s. On the other hand, export competition of Korean products except Petroleum Products, General Machinery, Iron and Steel, is decreased.

But Korea still revealed strong advantage over China in Electrical Machinery, Precision Instruments and Metal Products. But in Fish & Shellfish and Miscellaneous Goods(Sporting Goods, Footwear etc.), Korean comparative advantage is expected to be reversed soon. In the case of Textile Products which are the largest export products both of Korea and China in Japan, Chinese comparative advantage will furthermore get ahead of Korea.

## I. 서 론

중국은 지난 90년대 이후 무역수지 흑자가 계속되면서 세계경제 무대에서 무역대국으로 부상하고 있다. 특히 교역량이 91년의 세계 제15위에서 92년에는 11위로 올라섰으며 한국은 오히려 11위에서 12위로 밀려나 중국에게 추월을 당하였다. 그리고 교역품목이 공산품 중심으로 변화하고 있다. 지난 78년 총 수출액 중 공산품이 차지하는 비율은 46.5%로 대부분은 1차상품이 수출의 주종을 이루었다. 그러나 수출품에서 차지하는 공산품의 비율이 계속 증가하여 92년에는 79.94%에 이르고 있다. 수입에 있어서도 기계류, 공업용 기초자재의 비율이 꾸준히 증가하여 전체 수입에서 차지하는 공업제품의 비율이 지난 80년의 60%에서 92년에는 86%로 증가했다. 이와같은 중국의 수출입 품목의 변화는 중국의 개혁 개방정책 추진과 함께 가공무역분야가 성장하고 있음을 말해주고 있다. 따라서 대외무역에 보다 적극적인 자세로 나오는 중국은 세계시장에서 한국과의 경합은 불가피하게 되었다.

본 연구의 목적은 변화하는 국제경제 환경에서 80년대 까지 한국과 보완관계에 있는 중국이 90년대에 들어서면서 세계시장에서 한국과 경쟁관계로 발전함에 따라 양국의 제2의 수출시장인 일본시장에서 수출경쟁력 변화를 비교 분석하는 것이다. 따라서 이러한 한국과 중국의 수출경쟁력비교 분석은 지난 수년간 국내외 여건의 변화로 한국 상품의 수출경쟁력이 지속적으로 하락하는 시점에서 중국에 대한 무역정책과 국제경쟁력 강화라는 한국의 무역정책을 이해하는데 필요하다고 본다.

본 연구의 내용은 90년대에 들어서면서 경쟁관계로 발전한 한국과 중국의 수출동향과 수출구조의 변화를 파악한 후, 구체적으로 일본시장에서의 한국과 중국의 주요 품목별 수출경쟁력을 비교 분석하는 것이다. 이와같은 수출경쟁력을 비교 분석하기 위하여 양국의 대일 주요 수출품목에 대한 현시비교우위지수와 시장점유율을 이용하였다. 수출경쟁력에 관한 연구는 국내외적으로 많은 연구가 되어왔다. 특히 한국을 포함하여 수출지향적인 정책으로 경제성장을 주도해 온 개발도상국들은 수출경쟁력에 많은 연구를 보여왔다. 최근 수년간 한국은 국제수지 적자의 누적과 함께 수출경쟁력의 약화라는 문제가 제기되면서 한국, 일본, 대만간의 수출경쟁력 분석이 활발히 논의되고 있다(좌승희(1990), 조종화(1991), 임주환(1991), 김희주(1992), 강인수(1993)" 등). 한편 중국의 대외 개방정책이 추진되면서 세계시장에서 중국과

의 보완관계가 90년대 들어서면서 경쟁관계로 발전하면서 중국의 무역구조에 관심을 갖기 시작하였다(박용서(1980), 신태용(1983)<sup>2)</sup>, 고정식(1989), 이학규(1992) 등). 그러나 자료 확보의 어려움으로 중국에 관한 세부적인 연구는 아직 활발한 단계는 아니다.

본 연구는 품목별, 시장별로 한국과 중국의 수출경쟁력을 비교 분석하는 것으로서, 향후 수출시장의 확보와 장기적으로 비교우위산업을 파악하고 산업구조조정에 기여를 할 것이다. 특히 일본시장에서 중국과 수출경합이 예상되는 품목을 예측하여 기술개발과 특화 품목을 분석하여 수출경쟁력 강화 대책과 무역정책 수립에 활용이 가능하리라 본다.

## II. 수출동향 및 구조의 변화

### 1. 수출입 추이

한국의 무역수지는 1962년 경제개발이 시작된 이래 1985년까지 적자상태를 벗어나지 못했으나 1986년 이후 소위 3저의 영향으로 흑자로 전환되면서 1988년에는 89억 달러라는 무역수지 흑자를 기록하였다. 그러나 1989년 이후 악화되기 시작한 무역수지는 지속적인 높은 수입증가에 기인하여 1990년에는 다시 48억 달러의 적자로 전환되어 1991년에는 97억 달러라는 사상 최대의 무역수지 적자를 기록하였다.

이와같이 89년 이후 무역수지 적자가 확대된 이유는 수입물량 증가율이 수출물량 증가율을 크게 상회한데서 기인한 것으로 나타났다. 즉 1970년 이후 수출증가율이 연평균 15%이상을 기록하였으나 89년 이후 4% 내외의 저조한 수출증가율을 기록했기 때문이다. 반면 수입증가율은 1986년까지 연평균 5%의 수준에서 87년에는 30%의 높은 수입증가율을 기록하였으며 91년까지 연평균 16%의 수입증가율을 나타내고 있다. 한편 무역수지 변동요인을 가격요인과 물량요인으로 나누어 보면, 88년에는 가격변동요인 25.6억불, 물량변동요인 12.3억불로 나타났다. 91년에는 각각 4.8억불과 -54.6억불로 물량변동요인이 무역수지 적자의 주 요인이 되었다.<sup>3)</sup> 그러나 1992년에는 국내경기의 둔화로 수입이 줄어들고 선진국의 경기부진에 따른 수출경쟁의 격화로 가격변동요인이 -1.3억불, 물량변동요인이 49.1억불로 수출경쟁력이 악화되었다.

반면 중국은 현대화정책 추진 이전에는 수출입이 균형을 이루거나 흑자를 유지하였다. 그러나 대외개방정책이 추진되기 시작한 1978년<sup>4)</sup> 이후에는 1982, 83년을 제외하고는 무역수지 적자를 기록하여 1984년에는 149억 달러의 무역수지 적자를 기록하였다. 그 이후 적자폭이 감소하다 88년에 다시 77억 달러의 적자로 증가함에 따라 중국은 강력한 수입억제와 수출증대정책<sup>5)</sup>을 추진하여 1990년에는 87억 달러의 흑자를 기록하였으며 92년에는 44억 달러의 흑자

1) 최근의 일본시장에서 한국과 주요 경쟁국인 미국, 대만, 중국, 홍콩, ASEAN과의 경쟁력을 분석한 연구. 강인수(1993년 3월), 「일본시장에서 한국의 경쟁력 분석」, 대외경제정책 연구원.

2) 1981년 수출입 통계를 이용한 신태용(1983), 「한·중공간 수출경합관계 분석」, 한국산업 경제기술연구원, 참조.

3) 한국무역협회, 「무역연간」, 1992, pp.160-170.

4) 1978년의 11기 3중전회에서 대외개방 및 경제개혁을 결정하고 이후 대외무역관리체제를 개혁하기 시작했다. 이학규 외, 「중국의 대외경제정책 변화와 한중 경제교류」, 산업연구원, 1992, pp.45-57 참조.

5) 자세한 내용은 고정식, 「중국의 대외무역관리체제개혁과 그 영향」, 공산권경제, 산업연구원, 1989년 3월호 참조.

를 누리고 있다.

이는 86년 이후 연평균 18% 정도의 수출증가율을 지속적으로 유지하고 있기 때문이며 특히 1990년도에는 오히려 수입증가율이 9.8% 감소하는 현상을 보이고 있다. 따라서 한국과 중국은 무역수지면에서 대조적인 면을 보여주고 있다. 즉 1986년부터 89년까지는 한국은 흑자, 중국은 적자를 나타내고 있고 1990년 이후는 정반대의 현상을 나타내고 있다. (<표1 참조>)

## 2. 지역별 수출비중 추이

지역별 수출구조를 보면 한국의 수출대상국은 급속한 수출확대와 사회주의 국가들의 국제화, 개방화에 따라 세계의 모든 국가로 확대되었다. 이와같은 수출시장의 다변화로 수출지역의 편중도가 점차 완화되어 1970년의 미국, 일본에 대한 수출비중이 75.6%에서 1992년에는 38.75%로 하락하였다. 한편 1987년 까지 한국의 최대 수출시장이었던 북미지역은 88년 부터 대미수출의 감소로 아시아 지역에 선두를 내어주게 되었다. 1992년 중 수출시장구조를 <표2>에서 보면 아시아지역은 대일 수출비중이 15.14%로 88년에 비해 4.65% 감소한 반면 대아세안 수출증가로 47.51%를 기록하였으며, 북미지역은 대미 수출비중이 23.61%로 88년에 비해 무려 11.65% 감소하여 25.70%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한편 대EC 수출비중도 1988년에 비해 1.32% 감소한 12.08%로 나타났으며, 중남미, 아프리카 및 북방지역의 수출비중이 점차 증가하고 있다.

<표 1> 한국과 중국의 대외무역 추이

(단위: 억 달러, %)

	한 국			중 국		
	수 출	수 입	무역수지	수 출	수 입	무역수지
1978	127.1(26.5)	149.7(38.5)	-22.6	97.5(28.5)	108.9(51.0)	-11.4
1979	150.6(18.5)	203.3(35.8)	-52.7	136.6(40.1)	156.7(43.9)	-20.1
1980	175.1(16.3)	222.9 (9.6)	-47.8	181.2(32.7)	200.2(27.7)	-19.0
1981	212.5(21.4)	261.3(17.2)	-48.8	220.1(21.5)	220.2(10.0)	-0.1
1982	218.5(2.8)	242.5(-7.2)	-24.0	223.2 (1.4)	192.9(-12.4)	30.3
1983	244.4(11.9)	261.9 (8.0)	-17.5	222.3(-0.4)	213.9(10.9)	8.4
1984	292.5(19.7)	306.3(17.0)	-13.8	261.4(17.6)	274.1(28.1)	-12.7
1985	302.8 (3.6)	311.4 (1.6)	8.6	273.5 (4.6)	422.5(54.1)	-149.0
1986	347.1(14.6)	315.8 (1.4)	31.3	309.4(13.1)	429.0 (1.5)	-119.6
1987	472.8(36.2)	410.2(29.9)	62.6	394.4(27.5)	432.2 (0.7)	-37.8
1988	607.0(28.4)	518.2(26.3)	88.8	475.2(20.5)	552.8(27.9)	-77.6
1989	623.8 (2.8)	614.7(18.6)	9.1	525.4(10.6)	591.4 (7.0)	-66.0
1990	650.2 (4.2)	698.4(13.6)	-48.2	620.9(18.2)	533.5(-9.8)	87.5
1991	718.7(10.5)	815.2(16.7)	-96.5	719.1(15.8)	637.9(19.6)	81.2
1992	766.3 (6.6)	817.8 (0.3)	-51.5	850.0(18.2)	806.1(26.4)	43.9

자료: 한국은행, 「조사통계월보」, 각월호.

중국해관총서, 「중국해관통계」, 각호.

주: ( )안은 전년대비 증감율임.

〈표 2〉 한국과 중국의 지역별 수출비중 추이

단위 : %

	한 국				중 국			
	1988	1990	1991	1992	1988	1990	1991	1992
아 시 아	39.33	41.92	44.23	47.51	68.59	71.77	74.14	71.91
일 본	19.78	19.44	17.19	15.14	16.66	14.50	14.26	13.76
아세안	5.02	7.79	9.88	12.26	5.92	6.02	5.75	5.01
홍 콩	5.87	5.81	6.64	7.71	38.43	42.94	44.69	44.13
대 만	1.57	1.92	2.24	2.95	—	0.52	0.83	0.82
중국(한국)	2.80	0.92	1.40	3.46	—	2.0	3.03	2.87
유 럽	16.34	18.51	17.77	15.42	10.95	9.86	9.70	9.75
E C	13.40	13.60	13.54	12.08	9.93	8.11	9.37	8.94
북 미	38.05	32.44	28.15	25.70	7.93	9.04	9.38	10.88
미 국	35.26	29.78	25.82	23.61	7.11	8.35	8.61	10.11
캐나다	2.79	2.66	2.33	2.11	0.82	0.69	0.77	0.77
중 남 미	2.64	3.24	4.01	6.48	0.82	1.26	1.11	1.27
아프리카	1.24	1.41	3.38	2.33	3.96	2.09	1.39	1.53
대 양 주	1.84	1.87	1.71	1.76	0.90	0.85	0.90	0.93
기 타	0.56	0.61	0.75	0.80	6.85	5.13	3.38	3.73
전 체	100	100	100	100	100	100	100	100

자료 : 한국은행, 「국제수지」, 각월호, 한국무역협회, 「무역통계」, 「무역연감」, 각년호.  
중국해관총서, 「중국해관통계」, 각호.

주 : (1) 기타 지역의 수출은 중국의 경우 동유럽의 유고와 체코를 포함하며 주로 구조선에 대한 수출이 대부분이다.

(2) 아시아주에는 중동을 포함한 것임.

중국은 1978년도에 주요 수출상대국으로 사회주의국가들인 중앙계획경제국이 15.28%의 수출비중을 차지하고 있었으나 1992년에는 그 비중이 3.73%로 현격히 줄어들면서 사회주의권이외의 국가들에 대한 수출비중이 95%를 능가하고 있다.<sup>6)</sup> 1992년 중 중국의 수출시장구조를 보면 전통적으로 대아시아지역 수출비중이 72%로 아시아지역이 최대의 수출시장이며, 특히 대홍콩 수출비중이 44%로 홍콩시장에 의존적이다. 그리고 대일 수출비중은 14%로 중국에 있어서 일본은 제2의 시장이다. 또한 대미 수출비중도 1992년에는 88년에 비해 3%가 증가한 10.11%를 기록하면서 미국이 중국의 중요한 수출시장으로 부상하였다.

한편 한국과 중국의 주요 수출시장으로서 1992년 중 10대 수출시장을 비교해보면 1위에서 5위까지 한국은 미국, 일본, 홍콩, 독일, 싱가포르 순이며 중국은 홍콩, 일본, 미국, 독일, 한국의 순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 중 한국과 중국의 10대 수출시장에 모두 포함되고 있어 경합이 예상되는 시장은 일본, 미국, 홍콩, 독일, 싱가포르, 영국 등이다. 따라서 국제시장에서 한국과 중국의 수출경쟁관계는 상당히 광범위하게 치열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특히 10개 수출경합시장에 대한 수출이 한국과 중국의 총수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각각

6) 이학규 외, 앞의 책, p.80, <표 IV-4>참조.

69.66%, 82.68%로 매우 높게 나타나고 있다. 그리고 지역별로 보면 미국, 일본, 독일, 영국 등 선진국과 홍콩, 싱가포르 등의 동남아시아 지역으로 양국의 최대시장에서 경쟁적이다. 이들 시장중 일본은 양국의 총수출에서 차지하는 수출구성비가 15%내외를 차지하여 수출실적이 2위인 전통적으로 가장 경합이 치열한 시장이며, 홍콩은 정치적, 지역적 특성 때문에 중국의 가장 큰 시장으로 여겨지고 있다. 그러나 최근 동남아시아 시장이 한국의 제3의 수출시장으로 부상하면서 이 지역에서의 수출경합이 예상된다. 또한 중국은 경제발전을 통한 현대화 달성을 위하여 대외경제협력을 적극적으로 도모하여 미국, 일본 등 서방국가들과의 경제협력을 지속적으로 강화하고 있다.<sup>7)</sup>

그중 한국의 제1시장인 미국시장에 대한 중국의 수출비중이 1992년에 10.11%를 기록하면서 수출경합이 예상된다. 중국은 1970년대 닉슨대통령의 방중 이후 무역이 재개되었으나 양국의 국내사정으로 크게 진전되지 못하다가 77년 덩소평이 복권되고 대외무역의 활성화와 외국인투자의 도입방침에 따라 중미간의 경제관계가 새로운 단계로 접어들었으며 1980년 미의회는 중국에 대한 최혜국대우를 승인하기에 이르렀다. 그후 천안문사태로 인하여 양국간 경제관계가 악화되기도 했으나 1990년 중국의 제엄령 해제로 상황이 호전되어 1990년 미국은 중국에 대한 최혜국대우를 연장하기로 결정했다.<sup>8)</sup> 최근에는 미국의 지속적인 대중 무역수지적자와 중국에 대한 시장개방 압력 및 최혜국대우의 연장 문제 등으로 양국간 무역마찰 문제가 발생하고 있으나 중국은 미국시장에서 한국의 강력한 경쟁국으로 부상하고 있다.

### 3. 상품별 수출비중 추이

한국의 수출은 1960년대에는 1차산품, 1970년대에는 경공업제품, 1980년대에는 중화학공업제품이 수출을 주도해 왔다. 그리고 공산품의 수출비중도 1962년의 27.0%에서 1970년대 중반에는 50%를 넘어서 1980년대에 들어서에는 90%를 차지하고 있다. 공산품 중에서도 중화학공업제품의 비중이 1982년부터 경공업제품을 상회하여 1991년에는 60%를 기록하고 있다. 1992년 중 한국의 상품별 수출비중을 보면 1차산품의 수출비중이 6.55%, 공산품은 93.45%를 기록하고 있다. 그 중 화학물 및 관련제품, 재료별 제조제품 그리고 기계 및 운수장비 등의 비중이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72.41%를 차지하고 있으며, 반면 잡제품 및 기타로 분류된 제품의 수출비중은 감소 추세를 보이면서 21.04%를 나타내고 있다(〈표 3〉 참조).

반면 중국은 1970년대 말까지는 1차산품의 수출비중이 50% 이상을 차지하였으나 1986년에 1차산품은 36.43%, 공산품은 63.57%로 역전되어 공산품의 비중이 높아지고 있다. 공산품 중 최근에 중화학공업제품의 비중이 증가하는 추세이나 여전히 경공업제품의 비중이 높아 경공업제품 중심의 수출이 이루어지고 있다. 1992년 중 중국의 수출비중을 〈표 3〉에서 보면 1차산품의 수출비중이 20.06%를 차지하여 현저히 감소한 것을 알 수 있다. 그러나 공산품의 수출비중은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79.94%를 나타내고 있으며 그 중 기계 및 운수장비의 중화학공업제품 수출비중이 15.55%로 급격히 증가하였다. 한편 중국은 홍콩, 대만, 일본 그리고 구미 선진국의 자본과 기술을 도입하여 노동집약산업의 성장과 함께 고부가가치 산업의 육성

7) 중국은 1983년 일본과 최초로 "소극에 대한 2중과세의 회피와 탈세방지에 관한 협정"을 맺은 후 1990년까지 미국, 프랑스, 영국 등 28개국과 조세협정을 맺고 있으며, 1982년 스웨덴과 "투자의 장려 및 상호보호에 관한 협정"을 체결한 후 독일, 프랑스, 영국 등 27개국과 투자보호협정을 맺고 있다. 이학규 외, 앞의 책, pp.57-63참조.

8) 이학규 외, 앞의 책, p.106(표 IV-14) 중미 경제관계 주요 일지 참조.

〈표 3〉 한국과 중국의 상품별 수출비중 추이

단위 : %

	한 국				중 국			
	1988	1990	1991	1992	1988	1990	1991	1992
1차 상품	6.24	5.92	6.64	6.55	30.35	25.55	22.55	20.06
식품 및 주로 식용산동물	3.92	3.14	3.00	2.77	12.39	10.62	10.05	9.83
유료 및 담배	0.22	0.19	0.16	0.10	0.50	0.55	0.74	0.85
비식용원재료(연료제외)	1.14	1.52	1.38	1.40	8.95	5.70	4.85	3.70
광물성연료, 운할유 및 관련물질	0.96	1.07	2.10	2.27	8.35	8.42	6.70	5.52
동불성 유지 및 왁스	0.00	0.00	0.00	0.01	0.16	0.26	0.21	0.16
공산품	93.76	94.08	93.36	93.45	69.65	74.45	77.55	79.94
화학물 및 관련제품	3.10	3.86	4.44	5.81	6.09	6.01	5.31	5.11
재료별 제조제품	20.83	22.08	22.37	24.13	22.07	20.26	20.10	18.99
기계 및 운수장비	38.65	39.29	41.71	42.47	5.83	9.01	9.94	15.55
잡제품 및 기타	31.18	28.85	24.84	21.04	35.66	39.17	42.10	40.29

자료 : 한국은행, 「조사통계월보」, 각월호, 중국해관총서, 「중국해관통계」, 각호.

을 서두르면서 한국의 수출 주종품목인 전기, 전자, 섬유, 화학 등 공산품 위주로 수출품목을 급속히 전환하고 있다.

수출상품을 소분류하여 살펴보면 〈표 4〉처럼 1980년대에는 한국의 전체적인 10대 수출상품의 변화는 없으나 90년대에는 순위 변화가 나타났다. 1992년에 전력기기, 발전관(SITC 77) 등의 품목이 의류 및 부속품(SITC 84)을 제치고 1위 수출상품으로 부상하였다. 그리고 섬유사, 직물 및 섬유제품(SITC 65)과 철강제품(SITC 67)의 수출이 각각 2위와 5위로 올라섰다. 반면 5위 까지 기록했었던 신발(SITC 85)의 경우 수출비중이 계속 감소하고 있다.

한편 중국은 1990년대에 기존의 10대 수출상품 중 섬유원료(SITC 26), 철강(SITC 67), 그리고 어패류(SITC 03)가 빠지고 대신 신발(SITC 85)이 1991년에 5위로 올라섰으며 중화학공업제품인 전기전자제품인 SITC 76와 SITC 77류가 각각 6위와 10위로 올라섰다. 그러나 중국의 주 수출상품은 아직도 경공업제품인 섬유류(SITC 84, SITC 65)와 잡제품(SITC 89) 그리고 석유, 석유제품(SITC 33)이 주종을 이루고 있다.

따라서 중국은 노동집약산업의 경쟁력(표 5 참조)이 급속히 증가하여 수출경합이 가장 치열한 품목은 경공업제품인 의류 및 부속품, 섬유사, 직물 및 섬유제품, 신발, 그리고 완구류, 운동용품, 악기류 등의 잡제품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앞으로는 중화학공업제품인 통신장비, TV수상기, 라디오, 녹음기 및 재생기 그리고 전력기기 등의 품목에서도 수출경합이 예상된다.

〈표 4〉 한국과 중국의 10대 상품별 수출비중 변화

단위 : %

SITC	한 국				SITC	중 국		
	1988	1990	1991	1992		1988	1990	1991
84	14.32(1)	12.12(1)	10.32(2)	8.83(3)	65	13.58(1)	11.28(1)	10.76(2)
76	10.23(2)	9.65(3)	9.09(3)	8.53(4)	84	10.25(2)	11.03(2)	12.12(3)
77	9.33(3)	10.55(2)	11.74(1)	12.57(1)	33	7.09(3)	7.19(3)	5.33(4)
78	6.74(4)	4.42(7)	4.26(8)	4.77(7)	89	3.52(4)	4.26(4)	4.63(4)
65	6.41(5)	7.72(4)	8.47(4)	8.84(2)	26	3.52(5)	1.77	1.57
85	6.26(6)	6.63(5)	5.34(6)	4.15(8)	05	3.40(6)	2.81(5)	2.71(7)
67	5.02(7)	5.31(6)	5.16(7)	5.74(5)	76	1.66	2.80(6)	2.81(6)
					51-2	2.81(7)	2.71(7)	2.54(8)
89	4.25(8)	3.69(10)	3.30(10)	2.75(10)	5	1.53	2.59(8)	3.23(5)
					67	2.12(8)	2.07	2.32
75	4.24(9)	4.16(9)	4.06(9)	4.03(9)	69	2.12(9)	2.32(9)	2.37(9)
79	2.90(10)	4.31(8)	5.75(5)	5.37(6)	03	2.04(10)	2.21(10)	1.64
계	69.70	68.56	67.49	65.58	77	1.20	1.96	2.34(10)
						50.45	49.20	49.43

자료 : 한국은행, 「조사통계월보」, 각월호, 중국해관총서, 「중국해관통계」, 각호.

SITC 어패류(03), 채소 및 과일(05), 섬유원료(26), 석유 및 석유제품(33), 화학원소 및 동화합물(51-2), 섬유사, 직물 및 섬유제품(65), 철강(67), 금속제품(69), 사무용기기(75), 통신장비, TV수상기, 라디오, 녹음기 및 재생기(76), 전력기기, 광전관, 및 가정용전기장비(77), 승용차 및 콘테이너(78), 선박(79), 의류 및 부속품(84), 신발(85), 완구류, 운동용품, 악기류 등의 잡제품(89).

주 : ( ) 안은 순위를 나타냄.

〈표 5〉 한국과 중국의 RCA 추이

		농산물자원 집약산업	광물성자원 집약산업	노동 집약산업	자본 집약산업
중 국	1970	233	33	250	31
	1980	170	89	335	37
	1989	102	62	414	44
한 국	1970	127	41	466	26
	1980	73	11	486	97
	1989	40	20	312	94

자료 : Drysdale & Elek(1992), "China and the International Trading System", Pacific Economic Paper No.214, p.6, Table 2.



### III. 품목별 비교우위구조와 수출경쟁력 비교

#### 1. 한국과 중국의 대일 수출구조 비교

일본은 한국과 중국 모두 제2의 수출시장으로서 한국의 대일수출은 80년대의 지속적인 증가로 1989년에 134.6억달러의 최고를 기록하였으나, 90년대에 들어서면서 부진하여 1992년에는 116억달러로 감소하였다.<sup>9)</sup> 반면 중국의 대일수출은 지속적인 증가세를 유지하여 1992년에 한국을 능가하여 117억달러를 기록하였다(〈표 6〉참조). 한편 한국의 일본시장 점유율도 1988년 6.3%로 중국의 일본시장 점유율 5.3%를 앞섰으나 1990년에는 중국(5.13%)이 한국(4.99%)을 앞선 이후, 격차를 더욱 벌이면서 1992년에는 중국의 일본시장 점유율은 7.28%로 증가하고 한국은 4.98%에 그쳤다.

〈표 6〉 한국과 중국의 대일수출 추이 (단위: 백만달러, %)

	1988	1989	1990	1991	1992
한국	12004.1(42.28)	13456.8(12.10)	12637.9(-6.09)	12355.6(-2.23)	11599.5(-6.12)
중국	7922.1(23.82)	8362.5(5.56)	8998.8(7.61)	10251.6(13.92)	11699.4(14.12)

자료 : 한국은행, 「국제수지」, 각월호, 중국해관총서, 「중국해관통계」, 각호.

주 : ( )안은 전년대비 증가율임.

양국의 대일수출구조를 〈표 8〉과 〈표 9〉에서 살펴보면, 한국의 경우 경공업제품인 섬유제품(23.67%)과 중화학공업제품인 기계기기(18.50%), 금속제품(16.23%)이 주종을 이루고 있으며, 중국은 경공업제품인 섬유제품(29.73%)과 1차산품인 식료품(17.21%), 광물성 연료(16.62%)가 주종을 이루고 있다. 한국의 대일수출상품의 구성비가 증가하는 품목을 보면 전기기기, 철강 및 석유제품이며 감소하는 품목은 어패류와 섬유제품이다. 특히 섬유제품 중 직물제의류 및 부속품은 1988년의 22.42%에서 1991년의 18.87%로 부러 3.55%가 감소하였다.

반면 중국은 섬유제품이 24.73%에서 29.73%로 5%의 증가를 나타냈으며 그밖에 잡제품인 신발, 여행용구, 핸드백과 전기기기 품목에서 대일수출상품 구성비가 현저히 증가하였다. 감소한 품목으로는 식료품, 원료, 광물성 연료인 주로 1차산품으로 광물성 연료는 4.87%가 감소한 16.62%이다. 따라서 중국은 1990년대에 대일수출상품 구성비에 있어서 공산품의 비중이 50%를 상회하고 있다.

따라서 일본시장에서 한국과 중국의 수출경합이 가장 치열한 품목은 섬유제품으로서 그중 직물제의류 및 부속품, 편직제의류 및 부속품, 직물 등에서 나타나고 있으며, 신발, 여행용구, 핸드백 등의 잡제품과 어패류에서 경쟁이 이루어지고 있다. 또한 장기적으로 전기기기와

9) 최근 대일 수출이 부진한 근본원인은 일본의 수입수요가 둔화되었고, 한국의 대일수출품 가운데 중·고급품은 선진국 제품으로 일본의 수요진환, 저가품은 후발개도국의 시장점식에 의해 각각 수요기반을 상실한데 기인한다.

금속제품 등 중화학공업 부문에서의 경쟁이 예상된다. 그리고 엔화 강세에 따른 일부산업의 경쟁력 약화와 일본기업의 해외사업 확대, 수입품의 가격인하, 일본의 소비수요의 다양화, 고압화 등의 요인으로 일본의 무역구조 변화가 예상되어 원재료의 수입비중이 저하되고 제조업 제품 수입비중이 확대되고 있다.<sup>10)</sup> 그러므로 일반기계부품과 표준품 및 가전제품에 있어서 경쟁이 치열할 것이다.

한편 <표 7>의 대일시장에서 한국과 중국의 수출결합도지수(ESI) 추이를 보면 중국의 개방화 정책 이후 전 산업에 대한 ESI가 상승하여 중국의 수출산업구조가 급속히 한국과 가까워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특히 잡제품의 경우 중국과의 ESI가 1990년에 88.58로 나타나 한국과의 경쟁이 가장 치열하며, 기계 및 운수장비 부문에 있어서도 중국의 대일 수출구조가 한국과 경쟁적인 형태로 변하고 있다.

<표 7> 한국과 중국의 대일시장 수출결합도 지수 추이

	전산업(0-9)	화학물 및 관련제품(5)	재료별 제조제품(6)	기계 및 운수장비(7)	잡제품(8)
1970	28.55	0.00	72.97	78.17	95.15
1975	27.84	34.89	64.18	54.83	72.71
1980	35.50	68.12	70.47	52.97	74.31
1985	45.90	48.82	43.01	73.63	90.69
1988	50.62	50.26	56.30	82.93	88.11
1990	61.01	54.17	58.19	84.42	88.58

자료: 조종화(1991), 「한국, 대만, 일본의 환율변동과 수출경쟁관계 분석」, KIEP, pp. 96-100.

(부표)에서 정리, 강인수(1993), 「일본시장에서 한국의 경쟁력 분석」, KIEP, pp. 25-26.

주 : ( )안은 SITC 대분류번호임.

10) 일본의 수입추이를 보면, 1981~90년까지의 10년간 수입총액이 연평균 5.3% 증가한 데 비해 제조업제품 수입액은 연평균 13.9%로 크게 증가하였다. 그 결과 1980년대 초까지 20%대였던 제조업제품 수입비율은 1985년에 31%, 1991년에는 50.8%에 달하였다.

11) 수출결합도지수(Export Similarity Index: ESI)는 특정시장에서 두나라의 수출구조가 얼마나 경쟁적인가를 나타내주며, ESI의 값이 100이면 특정시장에서 두나라의 수출구조가 완전히 일치하는 것이고 0이면 수출구조가 전혀 다르다는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그 값이 100에 가까울수록 두 나라의 수출구조가 비슷하여 경쟁적임을 나타낸다.

〈표 8〉 한국의 대일수출 품목별 시장점유율과 RCA지수 (단위:%)

	RCA 지수			시장점유율			수출구성비		
	1988	1990	1991	1988	1990	1991	1988	1990	1991
식료품	101	94	86	6.38	4.68	4.50	15.73	12.63	12.56
어패류	216	199	178	13.60	9.92	9.25	12.05	8.90	8.86
과일 및 채소	120	154	138	7.56	7.70	7.21	2.37	2.56	2.57
원료	14	23	20	0.90	1.13	1.06	2.13	2.74	2.34
섬유원료	9	3	6	0.54	0.15	0.33	0.15	0.03	0.06
금속원료	4	10	7	0.22	0.50	0.33	0.16	0.39	0.24
기타원료	21	33	30	1.32	1.62	1.58	1.81	2.31	2.04
광물성 연료	15	17	19	0.94	0.83	0.96	3.06	4.01	4.27
석유제품	82	94	127	5.18	4.70	6.59	3.05	3.88	4.08
공산품	170	166	165	10.71	8.28	8.61	77.60	79.09	80.01
화학품	53	71	68	3.31	3.55	3.55	4.16	4.87	5.01
기계기기	106	103	102	6.66	5.15	5.33	15.05	17.96	18.50
(일반기계)	50	69	63	3.14	3.46	3.29	2.48	4.13	3.83
(전기기기)	212	219	208	13.39	10.92	10.83	10.53	11.95	12.86
(정밀기계)	123	91	83	7.76	4.54	4.30	1.27	1.16	1.18
섬유제품	485	467	410	30.53	23.26	21.38	27.48	25.44	23.67
(직물)	212	262	274	13.36	13.14	14.24	1.84	2.02	2.00
(섬유제품 부수물)	179	187	182	11.43	9.28	9.41	1.02	1.03	1.00
(직물제의류 및 부속품)	626	564	478	39.51	28.15	24.92	22.42	20.93	18.87
(편직제의류 및 부속품)	703	665	582	44.23	33.06	30.23	10.55	8.24	8.49
금속제품	184	210	225	11.57	10.45	11.71	14.88	14.48	16.23
(철강)	489	596	575	30.85	29.71	29.93	12.08	11.63	13.35
(금속품)	256	261	261	16.06	13.00	13.56	1.69	1.96	2.22
기타 공산품	164	148	166	10.36	7.38	8.65	16.05	16.34	16.60
(비금속광물)	150	147	155	9.45	7.31	8.09	3.32	3.36	3.20
(잡제품)	217	182	221	13.66	9.07	11.54	11.64	11.86	12.29
[여행용구, 핸드백 등]	464	434	437	29.56	21.63	22.78	1.95	2.43	2.75
[신발]	666	662	574	44.88	33.20	30.09	3.93	3.64	3.74

자료 : JETRO, White Paper on International Trade Japan 1989, 1990, 1991, 1992로부터 계산.

〈표 9〉 중국의 대일수출 품목별 시장점유율과 RCA지수 (단위:%)

	RCA 지수			시장점유율			수출구성비		
	1988	1990	1991	1988	1990	1991	1988	1990	1991
식료품	116	119	118	6.12	6.13	7.10	18.06	16.05	17.21
어패류	109	143	126	5.74	7.34	7.56	6.09	6.40	6.28
과일 및 채소	310	276	289	16.32	14.17	17.35	6.14	4.58	5.37
원료	89	74	70	4.70	3.82	4.21	13.37	9.02	8.05
섬유원료	333	232	226	17.56	11.96	13.60	5.89	2.62	2.35
금속원료	13	8	7	0.66	0.42	0.42	0.57	0.32	0.26
기타원료	80	86	81	4.19	4.39	4.86	6.91	6.08	5.44
광물성 연료	105	100	72	5.52	5.12	4.32	21.49	24.16	16.62
석유제품	85	72	65	4.50	3.70	3.88	3.17	2.97	2.08
공산품	101	105	119	5.33	5.41	7.16	46.29	50.22	57.74
화학품	79	79	71	4.17	4.06	4.27	6.28	5.41	5.23
기계기기	11	25	32	0.56	1.26	1.92	1.52	4.27	5.80
(일반기계)									
(전기기기)	20	58	62	1.04	2.97	3.92	0.98	3.15	4.04
(정밀기계)	19	35	47	1.03	1.80	2.80	0.20	0.45	0.67
섬유제품	436	487	515	22.93	24.97	30.93	24.73	26.53	29.73
(직물)	572	403	426	30.23	20.74	25.49	4.98	3.10	3.11
(섬유제품 부수물)	544	536	515	28.90	27.46	30.76	3.10	2.95	2.83
(직물제의류 및 부속품)	410	534	576	21.61	27.44	34.62	14.69	19.81	22.75
(편직제의류 및 부속품)	383	539	575	20.09	27.58	34.38	5.74	6.68	8.39
금속제품	89	6	74	4.68	3.44	4.43	7.21	4.63	5.33
(철강)	183	146	155	9.64	7.50	9.29	4.52	2.85	3.59
(금속품)		67	85		3.41	5.10		0.50	0.72
기타 공산품	67	85	117	3.53	4.36	7.00	6.55	9.38	11.66
(비금속광물)	41	56	68	2.15	2.90	4.09	0.90	1.29	1.41
(잡제품)		115	159		5.51	7.00		8.81	
[여행용구, 핸드백 등]	121	188	232	6.43	9.60	13.98	0.51	1.05	1.46
[신발]	109	236	306	5.69	12.24	18.47	0.64	1.30	1.99

자료 : 〈표8〉과 동일.

## 2. 현시비교우위지수와 시장점유율에 의한 분석

일본시장에서 한국과 중국 간의 주요 수출품목별 수출경쟁력 변화를 분석하기 위하여 현시 비교우위지수(Revealed Comparative Advantage Index)와 일본시장 점유율(Market Share)을 사용하였다. 국제경쟁력 측정에 사용되고 있는 현시비교우위지수는 무역성과를 측정하기 위하여 Balassa(1965)에 의해 처음 고안되어, 그후 Kojima (1971), Yamazawa (1971), Bowen(1983) 등에 의해 발전 응용되어 왔다.<sup>12)</sup> 본고에서는 Yamazawa에 의해 고안된 무역집중도지수로서 일본시장에서의 한국과 중국의 RCA는 다음과 같이 정의되며, 통상 RCA지수가 100 이상이면 비교우위, 100 이하이면 비교열위로 분류하고 있다.

$$RCA = \{(X_{ij}/X_i) / (X_{wj}/X_w)\} \times 100$$

$X_{ij}$  : 특정시장에서의 i 국가의 j 상품의 수출액

$X_i$  : 특정시장에서의 i 국가의 수출총액

$X_{wj}$  : 특정시장에 대한 j 상품 총수출액

$X_w$  : 특정시장의 수입시장 규모

RCA지수는 해당 상품의 수출성과를 해당국 수출규모의 상대적 크기인 규모변수로 조정함으로써 산업별 또는 국가별 비교가 가능하다. 그러나 특정국가의 수출이 몇개의 산업에 집중되는 경우 큰 값을 갖게 되어 비교우위가 과대평가 될 우려가 있다. 따라서 이 경우에 RCA 지수를 유용하게 이용하려면 수출다양화의 정도가 비슷한 국가들 사이에 국한하여 비교우위를 분석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리고 과거의 실적을 기준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한 국가의 무역정책 전환이나 수요구조의 변화 등에 따른 장래의 성장 잠재력에 대한 정확한 예측이 어렵다.

반면에 자료 확보가 용이한 수출변수들로만 구성되어 있어 수입제한정책 등의 보호제도에 의해 왜곡되기 쉬운 수입변수가 포함되어 있는 지수보다 비교적 정확한 비교우위를 설명할 수 있다. 또한 경쟁력 결정요인인 가격 및 비가격요인을 모두 포함하고 있어서 가격만으로 비교우위를 측정할 때 발생할 수 있는 문제를 보완할 수 있다.<sup>13)</sup> 이와같은 단점을 보완하기 위해 각국별 수출의 상대적 크기를 나타내 주는 시장점유율 변화를 RCA지수 변화와 함께 살펴봄으로써 수출경쟁력의 변화를 파악하였다.

한국과 중국의 주요 수출품목별 일본시장 점유율과 경쟁력 지표로서의 현시비교우위(RCA) 지수를 정리한 것이 <표 8>과 <표 9>에 나타나 있다. 이를 통해 다음의 4그룹으로 나누어 한국과 중국의 수출경쟁력을 비교 분석하면 다음과 같다.<sup>14)</sup>

그룹 A : 한국, 중국의 RCA지수가 모두 100이하 이나 한국>중국 혹은 그 반대인 경우  
금속원료, 기타원료, 광물성 연료, 화공품, 일반기계, 정밀기계

그룹 B : 한국의 RCA지수가 100이상 이고 중국은 100이하, 혹은 그 반대인 경우  
섬유원료, 석유제품, 전기기기, 금속품, 비금속광물

그룹 C : 한국, 중국의 RCA지수가 모두 100이상 이나 한국의 RCA>중국의 RCA 인 경우  
어패류, 편직제의류 및 부속품, 철강, 여행용구 및 핸드백, 신발

12) 산업연구원(1989), 「국제경쟁력 측정방법」 참조.

13) 산업연구원(1989), 「국제경쟁력 측정방법」, pp.55-59. 참조.

14) 한국과 중국이 1977년에 일본시장에서 수출경합이 치열한 품목으로 어류, 의류, 섬유사, 인조섬유 및 기타 직물, 카페트 등 건, 식물성잠제품원료, 석회 및 시멘트, 기타잠제품으로 나타났다. 박용서(1980), 「중공의 신무역정책과 우리의 대응」, 국제경제연구원, pp.124-127.

그룹 D : 한국, 중국의 RCA지수가 모두 100이상 이나 한국의 RCA(중국의 RCA인 경우  
과일 및 채소, 직물, 섬유제품 부수물, 직물제의류 및 부속품

① 그룹 A (금속원료, 기타원료, 광물성 연료, 화공품, 일반기계, 정밀기계)

이 그룹에 속하는 품목들은 일본시장에서 한국, 중국 모두 비교열위를 나타내고 있다. 그 중 금속원료는 양국 모두 1991년 RCA지수(10 이하)와 시장점유율(1% 이하)에서 아주 미미한 상태이다. 그러나 중국은 기타원료(1991년 RCA지수:81, 시장점유율: 4.86), 광물성 연료(72.4.32)와 화공품(71.4.27)에서 우위를 보이고 있으며, 한국은 일반기계(63.3.29)와 정밀기계(83.4.3)에서 우위를 보이고 있다.

중국이 우위를 나타내고 있는 기타원료에는 중자유(중국의 시장점유율:9.6%), 목재(1.9%), 천연비료(12.8%), 동식물 유지 및 기타 동식물 원료(14.5%)이며, 광물성 연료에는 석탄(4.4%)과 원유(5.9%) 그리고 화공품 중 무기화학품(16.9%)으로 이는 부존자원의 차이에 의한 것으로 분석된다. 그러나 화공품 중 유기화학품(한국의 시장점유율:3.6%)과 플라스틱제품(9.7%)은 한국의 시장점유율이 높게 나타나고 있다. 한편 한국이 경쟁력에서 우위를 보이고 있는 정밀기계 중 시계는 중국의 시장점유율(4.7%)이 한국(4.1%)보다 높게 나타나 한국의 경쟁력이 떨어지고 있다.

② 그룹 B (섬유원료, 석유제품, 전기기기, 금속품, 비금속광물)

섬유원료는 1991년 중국의 RCA지수(226)와 시장점유율(13.6%)이 한국(6.0.33%)보다 훨씬 더 높아 경쟁력이 상당히 강하며 그 중 생사(83%)과 면화(8.5%)의 시장점유율이 높게 나타나고 있다. 그러나 1988년의 RCA지수(333)와 시장점유율(17.56%)을 비교해 볼 때 경쟁력이 상당히 하락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반면 석유제품, 금속품, 전기기기와 비금속광물은 한국의 RCA지수가 중국보다 높아 경쟁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석유제품의 경우 한국의 RCA지수는 1988년에 비해 1991년에는 각각 82에서 127로 비교열위에서 비교우위품목으로 바뀌었고, 시장점유율은 5.18%에서 6.59%로 상승하였으며 중국은 하락하였다. 그러나 전기기기의 경우 한국의 RCA지수는 212에서 208, 시장점유율은 13.39%에서 10.83%로 하락하였으며 중국은 각각 20에서 62, 1.04%에서 3.94%로 급격히 상승하여 앞으로 이 부문에서의 경쟁이 예상된다. 그 중 중전기, 전기동력기는 이미 중국의 시장점유율이 한국보다 높게 나타나고 있으며, 통신장비는 거의 비슷한 시장점유율을 차지하고 있다. 반면 한국은 녹음기 및 재생기와 광전관 등의 가정용 전자와 전자부품에서 상당한 우위를 점하고 있다.

그리고 금속품과 비금속광물의 RCA지수는 양국에서 모두 증가추세를 보이고 있으며 중국에서의 증가율이 더욱 높게 나타나고 있다. 그러나 아직까지 이들 품목에 대한 한국의 RCA지수와 시장점유율이 2배 이상 높기 때문에 한국의 경쟁력이 계속 유지될 것이다. 특히 금속품 중 철구조물의 시장점유율은 40.7%로 상당히 높다.

③ 그룹 C (어패류, 편직제의류 및 부속품, 철강, 여행용구 및 핸드백, 신발)

이 그룹에 속하는 품목들은 한국과 중국 모두 일본에서 비교우위를 나타내고 있는 품목으로 상당히 경쟁적이며 아직까지는 한국의 RCA지수가 중국보다 높게 나타나 한국의 경쟁력이 중국보다 강하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철강을 제외한 품목들의 RCA지수와 시장점유율의 변화를 살펴보면 한국은 지속적으로 감소하는 반면 중국은 급속한 증가율로 증가하고 있다. 따라

서 이들 품목들의 경쟁력이 앞으로는 역전되리라고 예상된다.

어패류는 지리적 인접성으로 인하여 한국이 중국보다 비교적 경쟁력이 강한 품목이었으나 최근 한국의 RCA지수는 216(1988년)에서 178(1991년)로, 시장점유율은 13.6%에서 9.25%로 각각 하락하였다. 반면 중국은 동 기간 중 RCA지수는 109에서 126, 시장점유율은 5.74%에서 7.56%로 증가하여 거의 대등한 경쟁을 하고 있다. 어패류 중 한국은 활선어(시장점유율:10.6%)와 가공 어패류(19.6%)에서 중국은 갑각류와 연체동물(9.6%)에서 각각 우위를 보이고 있다.

섬유제품 중 편직제의류 및 부속품(Knit Clothing & Accessories)이 유일하게 한국(582)이 중국(575)보다 RCA지수가 높게 나타나고 있으나 시장점유율에서는 이미 중국(34.38%)이 한국(30.23%)을 추월하여 중국의 경쟁력이 강하다고 할 수 있다. 한편 경쟁력에서 한국이 중국을 훨씬 앞섰던 잡제품의 경우 중국의 급격한 상승으로 한국이 위협을 받고 있다.<sup>15)</sup> 특히 일본의 잡제품 수입 중 57%를 차지하고 있는 가구류, 여행용구 및 핸드백, 장난감 및 게임기구, 스포츠 용구, 골동품 및 예술품, 신발 등에 있어서 중국의 시장점유율이 한국에 근접하여 상당히 경쟁적이며, 그 중 장난감 및 게임기구는 시장점유율에서 이미 중국(31.7%)이 한국(16.7%)을 크게 앞서고 있다.

이 그룹에 속한 품목 중 유일하게 한국의 RCA지수나 시장점유율이 증가하고 있는 품목이 철강이다. 일본의 철강 수입시장에서 한국은 시장점유율이 29.93%로 1위를 차지하고 중국은 9.29%로 3위를 차지하여 당분간 한국의 경쟁력이 높게 유지될 전망이다. 그러나 한국의 주 수출품인 보통강은 저임금 국가인 개도국의 추격으로 경쟁력이 점차 약화되고 있기 때문에 철강산업이 수출산업으로 지속적인 성장을 하기 위해서는 고급강을 중심으로 한 제품의 고부가가치화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 ④ 그룹 D (과일 및 채소, 직물, 섬유제품 부수물, 직물제의류 및 부속품)

이 그룹에 속하는 품목들은 일본시장에서 한국과 중국 모두 비교우위를 나타내고 있는 품목이나 과일 및 채소, 직물(Fabric), 섬유제품 부수물((Secondary Textile Products(Excl. Clothing))은 중국의 경쟁력이 한국에 비해 상당히 강함을 알 수 있다. 특히 일본 섬유제품 수입의 76%를 차지하고 있는 직물제의류 및 부속품(Clothing & Accessories)은 한국의 경쟁력이 우위이었으나 1991년에 들어서면서 RCA지수와 시장점유율에서 중국보다 낮아졌다. 따라서 한국의 대일 수출에 대한 이들 제품들의 경쟁력이 중국에 비해 보다 크게 떨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중국은 과일 및 채소의 대일 시장점유율이 상승하여 17.35%(1991년), 한국은 하락하여 7.21%로 중국의 경쟁력이 더욱 강화되고 있다. 한편, 경쟁이 가장 치열한 섬유제품은 대일 수출구성비에 있어서 양국 모두 1위(한국:23.67%, 중국:29.73%)를 기록하고 있는 주요 수출상품으로 한국은 1980년대 말 까지 경쟁력에서 우위를 지켜왔으나 1990년에 들어서면서 RCA지수(1988년:485→1991년:410)와 시장점유율(30.53%→21.38%)이 큰 폭으로 하락한 반면, 중국은 RCA지수(436→515)와 시장점유율(22.93%→30.93%)이 급격히 상승하여 경쟁력이 역전되면서 한국의 경쟁력이 크게 떨어지고 있다.

섬유제품 중 섬유사(Yarns)의 시장점유율 만이 한국(17.4%)이 중국(11.6%)보다 높으나 중국의 시장점유율 상승율이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다. 섬유직물(Fabrics)에서 가장 경쟁이

15) 박용서(1980)의 연구결과(1977년 통계자료 이용)에서 한국이 중국으로부터 위협을 받고 있는 품목으로 이미 섬유사, 식물성잡제품원료, 기타 잡제품으로 나타났다.

치열한 인조섬유직물(Synthetic Fiber Fabrics)에서는 시장점유율이 각각 중국 34.7%, 한국 31.3%로 중국이 경쟁력에서 다소 앞서고 있다. 그러나 견직물의 시장점유율은 한국이 앞서고 있으며(한국:29.3%, 중국:21.0%), 면직물의 경우는 중국(51.2%)이 한국(3.8%)보다 강한 경쟁력을 보여주고 있다. 그리고 의류를 제외한 섬유제품 부수물<sup>16)</sup>에서도 중국(1991년 RCA지수: 515, 시장점유율: 30.76%)이 한국(182, 9.41%)보다 훨씬 강한 경쟁력을 보이고 있다.

한편 한국과 중국 양국 모두에서 주종 수출품목인 직물제의류 및 부속품의 경우, 수출경쟁력의 차이가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다. 1988년 한국의 직물제의류 및 부속품에 대한 일본시장에서의 RCA지수와 시장점유율이 각각 626과 39.51%로 중국의 410, 21.61%보다 시장점유율에서 무려 17.9%가 높았으나, 1991년에는 한국의 RCA지수는 478로 떨어지고 시장점유율도 14.59%가 하락한 24.92%로 감소하였다. 반면 중국의 RCA지수는 576으로 시장점유율은 13.01%가 상승한 34.62%를 기록하여 일본시장에서의 직물제의류 및 부속품의 수출경쟁력이 크게 역전되었다.<sup>17)</sup>

## IV. 결 론

한국과 중국의 제2 수출시장인 일본시장에서 양국의 수출경쟁력을 현시비교우위지수와 시장점유율을 이용하여 분석한 결과, 1990년대에 들어서면서 중국의 경쟁력이 전품목에 걸쳐 두드러지게 강화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즉,

### 1. 일본시장에서 중국에 비해 한국의 수출경쟁력이 약화되고 있는 품목

어패류, 과일 및 채소, 기타원료, 전기기기, 정밀기계, 직물, 섬유제품 부수물, 직물제의류 및 부속품, 편직제의류 및 부속품, 금속품, 여행용구 및 핸드백, 신발.

### 2. 일본시장에서 중국에 비해 한국의 수출경쟁력이 강화되고 있는 품목

석유제품, 일반기계, 철강.

한국은 석유제품, 일반기계, 철강 등의 일부품목을 제외한 전품목에서 경쟁력이 떨어지고 있다. 그러나 아직까지 한국의 경쟁력이 훨씬 강하여 당분간 비교우위를 유지할 것으로 보이는 품목은 전기기기, 정밀기계, 금속품 등의 중화학공업제품이다. 그 중 전기기기 부문의 경우, 중국의 급격한 경쟁력 상승이 예상되며 증전기기, 전기동력기에 대한 시장점유율은 이미 중국이 앞섰고 통신장비의 경우는 거의 대등한 시장점유율을 나타내고 있다. 그리고 녹음기, 재생기, 라디오 등의 일부 가정용 전자제품은 중국의 급격한 상승으로 앞으로 치열한 경쟁 품목으로 여겨진다. 반면, 반도체 등의 전자부품에 대한 경쟁력은 한국의 지속적인 시장점유율 증가로 오히려 상승하여 한국이 강한 비교우위를 나타내고 있다.

어패류, 여행용구 및 핸드백, 신발 등의 일부 잡제품에 있어서는 한국의 경쟁력은 큰 폭으

16) 일본의 섬유제품 부수물 수입 중 침대시트 등의 특수직물류(Special Fabrics & Products)와 카펫 등의 마루덮개(Floor Coverings)가 주종을 이루고 있으며 중국의 시장점유율이 각각 26.7%, 33.4%로 상당히 높은 편이다.

17) 최근의 일본시장에서 한국과 주요 경쟁국간의 공산품(SITC 2단위) 수출경합 관계를 분석한 연구결과에 의하면, 한국이 중국보다 안정적으로 우위에 있는 품목은 3개, 중국이 한국보다 안정적으로 우위에 있는 품목은 9개로 나타났고, 한국의 우위가 중국에 의해 위협받고 있는 품목은 19개, 중국의 우위가 한국에 의해 위협받고 있는 품목은 4개로 나타났다. 강인수(1993), 「일본시장에서 한국의 경쟁력 분석」, 대외경제정책연구원.



로 떨어지는 반면 중국은 급격히 상승하므로 이들 품목에 대한 한국의 비교우위가 조만간 상실될 것으로 예상된다. 그 중 어패류에 있어서는 활선어와 가공어패류에서 한국의 시장점유율이 중국 보다 높고, 갑각류와 연체동물에서는 중국이 높다. 그리고 양국 모두 최대의 대일 수출품목인 섬유제품의 경우는 중국의 지속적인 경쟁력 상승과 한국의 지속적인 하락으로 중국과의 경쟁력 격차가 더욱 벌어지고 있다.

따라서 중국의 대일 수출구조가 급속히 한국과 경쟁적인 형태로 변화하고 있으며, 이미 1차 산품과 노동집약적인 경공업제품의 경우는 중국의 경쟁력에 밀리고 있다. 한편 일부 중화학공업제품에 있어서도 중국의 추격이 예상되어 한국은 대일 수출을 확대하기 위하여는 대일수출 구조에 있어 고도화가 절실하다.

## 참고문헌

- 강인수, "일본시장에서 한국의 경쟁력 분석",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정책연구:93-09) 1993.  
 고정식, "중국의 대외무역관리체제개혁과 그 영향", 공산권경제, 산업연구원, 1989.  
 김창남, 「일본의 산업 및 무역구조의 변화와 전망」, 대외경제정책연구원, 1992.  
 김희주, "한국과 대만의 업종별 수출경쟁력 비교", 세계경제동향, 제10권제8호, 산업연구원, 1992.  
 박용서, "신흥공업국의 수출경쟁력 비교 분석", 월간지역경제, 제1권1호, 국제경제연구원, 1980.  
 박용서, 「중공의 신무역정책과 우리의 대응」, 국제경제연구원, 1980.  
 신태용, 「한중공간 수출결합관계 분석」, 연구보고서 제25호, 한국산업경제기술연구원, 1983.  
 유재원, 「한국·대만·일본의 산업정책과 산업구조조정」, 대외경제정책연구원, 1991.  
 윤상철, "한국과 대만 수출상품의 가격경쟁력과 시장점유율의 변동", 세계경제동향, 제8권제11호, 산업연구원, 1990.  
 윤우진, "주요산업의 경쟁력 구조변화 분석", 세계경제동향, 제10권제9호, 산업연구원, 1992.  
 이학규 외, 「중국의 주요 산업분석」, 산업연구원, 1989.  
 이학규 외, 「중국의 대외경제정책 변화와 한중경제교류」, 산업연구원, 1992.  
 일본관세협회, 「외국무역개황」, 1990, 1991, 1992.  
 조종화, 「한국, 대만, 일본의 환율변동과 수출경쟁관계 분석」, 대외경제정책연구원, 1991.  
 좌승희, "한국의 아시아 신흥공업국 및 일본과의 대미수출경쟁: 환율효과를 중심으로", 한국개발연구, 제12권 제2호, 1990.  
 천상덕, "아태 개도국의 역내무역구조 심화와 자본재 수출경쟁력 분석", 세계경제동향, 제10권제6호, 산업연구원, 1992.  
 한국무역협회, 「수출통계」, 각년호.  
 한국무역협회, 「수입통계」, 각년호.  
 한국무역협회, 「무역통계」, 각년호.  
 한국무역협회, 「무역연감」, 각년호.  
 한국은행, 「국제수지」, 각월호.  
 한재윤 외, 「국제경쟁력 측정방법」, 산업연구원, 1989.  
 한충민 외, 「주요지역별 시장점유율 변화와 해외시장 진출전략」, 산업연구원, 1992.  
 Balassa, B. "The Changing Pattern of Comparative Advantage in Manufac-

- ured Goods". The Review of Economics and Statistics, Vol.61, 1979.
- Balassa, B. and Marcus Noland, 「Japan in the World Economy」, Washington D.C., IIE, 1988.
- Balassa, B. and John Williamson, 「Adjusting to Success: Balance of Payments Policy in the East Asian Nics」, Washington D.C., IIE, 1990.
- Bowen, Harry P. "On the Theoretical Interpretation of Indices of Trade Intensity and Revealed Comparative Advantage", Weltwirt. Archiv, Vol. 121, 1983.
- Drysdale, Peter and Andrew Elek, "China and The International Trading System", Pacific Economic Paper No.214, Australia-Japan Research Center, 1992.
- Finger, J.M. and M.E.Kreinin, "A Measure of Export Similarity and Its Possible Uses", The Economic Journal, 1979, pp.905-912.
- General Administration of Customs of the People's Republic of China, 「China's Customs Statistics」.
- IMF, 「Direction of Trade Statistics」, 각년호
- JETRO, 「White Paper on International Trade Japan」, 1990, 1991, 1992
- Jones Randall, Robert King and Michael Klein, "The Chinese Economic Area: Economic Integration without a Free Trade Agreement", OECD Working Papers no. 124, OECD, 1992.
- Kellman, M. and Tim Schroder, "The Export Similarity Index: Some Structural Tests", The Economic Journal, 1983, pp.193-198.
- Kojima, Kiyoshi, "Structure of Comparative Advantage in Industrial Countries : A Verification of the Factor-Proportions Theorem", Hitotsubashi Journal of Economics, Vol.2, 1970.
- Kreinin, M.E. "Effects of the EEC on Imports of Manufactures", Economic Journal, September 1972.
- Kreinin, M.E. "The Static Effects of EEC Enlargement on Trade Flow", Southern Economic Journal, April 1973.
- Noland, Marcus, 「Pacific Developing Countries: Prospects for the Future」, Washington D.C., IIE, 1990.
- Orr, J. "Evolution of U.S. Trade with China", Fed. Res. Bank New York Quart. Rev., Winter 1991-92, 16(4), pp.47-54.
- Platte, E. "Japan-China Trade: Performance and Prospects", Hitotsubashi J. Econ., December 1991, 32(2), pp.91-101.
- Pomfret, R. "The Impact of EEC Enlargement on Non-Member Mediterranean Countries', Exports to the EEC", The Economic Journal, 1981, pp.726-729.
- UN, 「Yearbook of International Trade Statistics」, 각년호.